

# 불조심 雄辯大會受賞作品

다음의 글은 지난 11月 14日 本協會가 內務部후원으로 實施한 第2回 불조심雄辯大會  
受賞者中 特賞者 1名과 最優秀者 2名의 原稿를 轉載한 것이다

<編輯者 註>



## 불조심 3대질서 운동

구래국민학교 2학년 권혜영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  
쫄직한 글씨의 현수막을 볼때  
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하나의 글  
자를 써놓곤 합니다 정신으로불  
조심! 행동으로 불조심! 환경으로  
불조심! 불! 불! 저 불빛!

이 작은 가슴속에 소름끼치는 무  
섭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불!

작년 이른봄의 어느날 양지바  
른 언니네집 뒤뜰에는 소꿉놀이가  
한창이었어요 엄마가 된 그 언니  
는 행주지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  
어가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놓  
고 “우리애기 진짜 고구마 찌줄께  
응!” 하며 석유콘로에 불을 붙지  
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부  
엌은 불바다가 되었고 울부짖던  
언니는 불속에 갇혀 버리고 말았답  
니다 “언니야! 언니야! 지옥,  
정말 생지옥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어야 할 언니는 병원에서 거의  
1년이나 되어 퇴원을 했지만 종적  
과고 일그러진 얼굴이 나를 볼때마

다 눈물을 흘리곤 한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몸  
서리 저지는 기억이 다시는 이 세  
상 어느 누구의 가슴에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조심! 조심! 또 조심!  
불조심 하자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  
다! 불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에 앞서 불의 무서움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자나깨나 불조심”을  
생각파하는 국민이 되자고 이 꼬마  
연사 여러분의 가슴에 불조심의 제  
1탄 “정신으로 불조심”을 힘차게  
던집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화재가 5천  
3백여건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  
단 말입니까? 그것도 2백여명의 귀  
한 생명을 숨점점으로 만들어버린  
대연각 화재 대왕코너 화재, 이리  
역 파악폭발 현대아파트 가스폭발  
사건 등과같이 놀랍도록 크고 비참  
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  
달아 일어남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불의 권  
요함과 힘을 잘알아 잘 사는 국민의  
삼의 밑거름으로 사용함에 앞서  
불의 올바른 사용과 꺼진불도 다시  
보고 또 보아서 화재란 낱말을 꾸  
리채 뽑아 저 출렁이는 단강물에 던  
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겠  
다고 여러분의 짐잔 두팔에 불조  
심의 제 2탄 “행동으로 불조심”을  
들러워 드립시다! 우리의 생관은  
불과는 멜레야 멜수가 없지 않습니  
까? 저 잔란한 전기불 이 마이크  
오늘 아침 맛있는 밥과 따끈한 찌  
개를 끓여준것도

그러나 여러분! 이 고마운 불  
생명의 불, 희망의 불이 무섭고 몸  
서리 저지는 악마로 변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야겠다고, 이 꼬마  
연사의 가슴속에 뭉치고 쌓여있는  
불조심의 제 3탄 “환경으로 불조  
심”을 삼진리 방방곡곡 울려 퍼지라  
고 힘차게 힘차게 외칩니다,

# 친구 잃은 슬픔



진명여중 1년 이 린 나

제가 살던 고장인 평택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댁에 심부름은 가는 도중 길가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집 옆집인 저의친구영이의 집에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란 저는 심부름 가는 것도 이른새 영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복한 비둘기가죽으로 불리우던 영이의 집에 무서운 파마가들이 탁진 것입니다. 엄마가 석유곤로에 불을 붙이고 기름통을 옆에 두고 정소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영이의 집은 붉은 악마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파마는 혀를 벌름거리며 정소하던 영이의 어머니와 공부하던 영이를 우리로 부터 앗아갔습니다.

아빠! 아빠! 목베이게 울부짖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것 같습니다. 불길속을 뛰어 들어갈려고 발버둥치는 영이 아버지 모습은 자마 인간으로서는 볼수없는 잠족

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저의 손은 눈밑으로 갔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엔 많은 것입니다. 나의 친구의 생명은 앗아간 불이란 악마는 우리의 혀점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뻐풀러 모으고 모은재산을 삼겨 버리고 재만남겨 놓은 불 무서운 파마가 지나간 뒤에 울면서 땅은지며 주괴해도 이랑곳 없다는듯이 인간들의 혀점을 노리는 불, 아자의 순간도 불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의 소방시설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불을 마들자고 이연사의 애타는 절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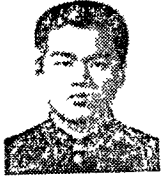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즐기롭고 지혜로와서 한번의 실수를 계기로 삼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닥쳐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깐사이에 벌어진 이 광경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수 같은 불, 사회의 좀벌레를 우리는 유비무환의 뜻을 되새기며 지나

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우리 모두 조심박사 같은 생활을하자고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담배 꽁초하나에도 무서운 파마를 싣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줄 알고 내가 아까우면 남도 아까울줄 알고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아낄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 국가의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는 근본을 뿌리세 뽑아야 되겠습니다.

화재 대비는 나 한가정의 대비가 아닌 내 나라 조국강산을 살찌우게 하는 지금 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 대한의 자랑스런 아들딸 소방사만이되자고 이 연사의 마지막 간곡히 호소합니다.





# 결코 멀지 않은 불행

영훈 고등학교 3학년 길 면 수

이 세상 누구나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나라 국민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축복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축복 받기를 원하는 것과 실지 축복을 받을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태고적 부터 우리 인간의 발전과 함께 이어 온 불에는 이즈말일 「장질 부사는 번지의 병 선리면 죽고만다」고 안고 있을 때 허균이라는 의원의 울 바른 불의 사용에 수백명 탄 마은 사람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증은 불 과 인간의 행복의 요람 우리 집 등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악의 불 개스족발과 같은 인간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불이 있습니다

1975년 4월 26일 그 날은 제 친구가 세상에 태어나서 15번째 맞는 생일날 이었습니다 3년전부터 시작해온 친구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호조를 보여 친구의 생일에 즈음해서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의 생일은 누구보다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선물 그리고 귀여운 막내 동생의 생일축하 노래는 친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젠 또 무슨 운명의 짓궂은 장난이란 말입니까? 친구 아버지께서 무심코 버린 담배꽂이가 증이를 태우고 마루를 태우

고, 온 집을 불바다로 만들고 말았으니 아름다운 꿈에만 잠겨있던 친구의 생일과티는 산산조각이난채 질식할듯한 연기를 말으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어린 동생의 귀여운 장난감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애끼시던 가구며 옷장들 그리고 10년 전 상경하여 남들이 모두 깊은잠에 빠져있는 새벽부터 남대문 시장에 나가시면서까지 번 재산 「서울에 가서 성공해보겠다 남들보다 더 잘살아 보시겠다며 1000원을 벌면 700원을 저금하시던 괴와 살이 어린 아버지의 재산이 시뻘건 불구덩이에 팔팔타고 있을때 안타깝게 지켜보던 친구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떡했겠느냐고 이 연사 여러분께 묻고만 싶습니다!

밤새도록 동네주민들의 도움으로 불길을 잡은 집에 들어간 친구의말은 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 타다만 시간들 그리고 다 타서 까맣게 변한 책과 노트 모두가 까맣게 변했다 책상이 있던 자리에 가서 까만 재를 탄 웅큼 쥐어든 나는 믿어지지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책상이란 말인가? 저것이 나의 국어책인가? 아니면 영어책인가? 순간 나는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아 영영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뒤에서 「모든 것이 다 내 불장이

다 그 담배꽂이가 내집을 태웠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바보야」하시든 아버지의 가냘픈 신음 소리를 들었을때 나는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불이난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 모두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라면 이렇게 후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의 생일과티도 행복하게 보낼수 있었을 것입니다」고 말하자 우리 식구는 그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울었다 하지만 까맣게 변해버린 재위에서 그 누구를 원망하고 그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야 했겠니? 하며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자기가 맞지만 앓으면 남이싸우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고 자기 집이 타지 않으면 불구경 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집이 파재를 당하여 까만재로 변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시겠습니까? 성냥불로 불이 났으니 성냥 회사에 책임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가 불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서 내 가족 내 재산을 파재의 재물로 바치지 말아야 겠다고 이연사 마작 막 애끓는 절규를 보내드립니다